

2008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현장

농가유대 삭감 및 송아지(육우)값 폭락에 대해 적극 대응 촉구 낙농인 주체역량 강화 위해 낙농기금 조성돼야

협회는 낙농현안과 협회사업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회하며 낙농인 대토론회 행사를 가졌다. 어려운 낙농육우 여건을 반영하듯, 이승호 회장과 농가들과의 토론시간에는 현안문제에 대한 건의와 보다 적극적인 협회활동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뤘다.

농가들은 낙농진흥회 70%유대 삭감, 초과 원유 300원 상한을 설정하는 잉여원유차등 가격제 개정 반대 활동과 기립불능우 처리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 잉여유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낙농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낙농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데 공감, 많은 지역으로부터 이론과 논리개발을 통한 낙농운동, 대국회·대정부 건의활동에 낙농자 조금 활용 등이 건의되었다. 특히 낙농가의 단합과 더욱 활발한 협회의 대정부, 국회 등 대외활동 전개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절실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협회 집행부에서는 전국적 의견을 모아 낙농기금의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현재 많은 목장의 어

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개값만도 못한 송아지값”이라며 최근 송아지(육우) 가격의 폭락 사태에 매우 격앙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육우값 폭락과 송아지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이에 대책으로 송아지 수매 및 도태 방안, 육우 가격 안정화, 송아지 안정생산제 적용 포함 등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육우산업 기반인식을 위해서는 육우 군납물량 확대, 육우저축금 사업 추진, 육우 전문매장 설립 등 육우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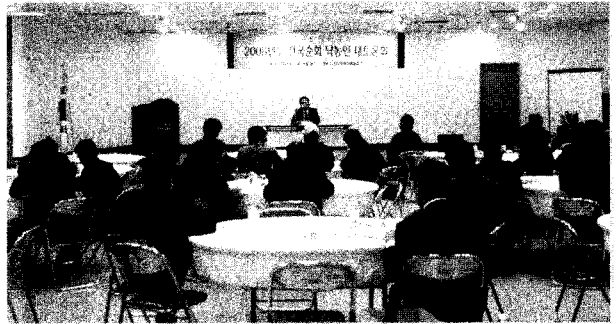
한편, 토론시간에 앞서 개최일별로 각기 다른 초청강연이 마련되어 우리 낙농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혜안을 듣고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토론회에서 수립된 여론을 바탕으로 활동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낙농육우농가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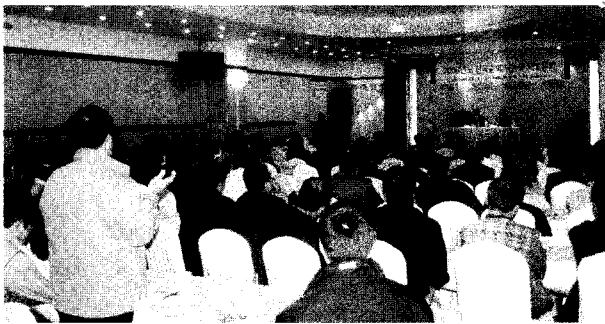
지역별 대토론회 주요 모습



◀ 11월 27일 개최된 충북지역 대토론회



▶ 11월 28일 개최된 경기지역 대토론회



◀ 12월 1일 개최된 충남지역 대토론회



▶ 12월 2일 개최된 전북지역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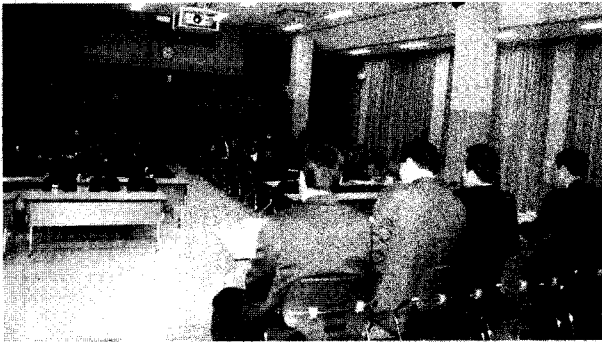
●● 현장스케치 11



◀ 12월 3일 개최된 전남지역 대토론회



▶ 12월 4일 개최된 경남지역 대토론회



◀ 12월 5일 개최된 경북지역 대토론회



▶ 12월 8일 개최된 강원지역 대토론회

낙농육우인지도자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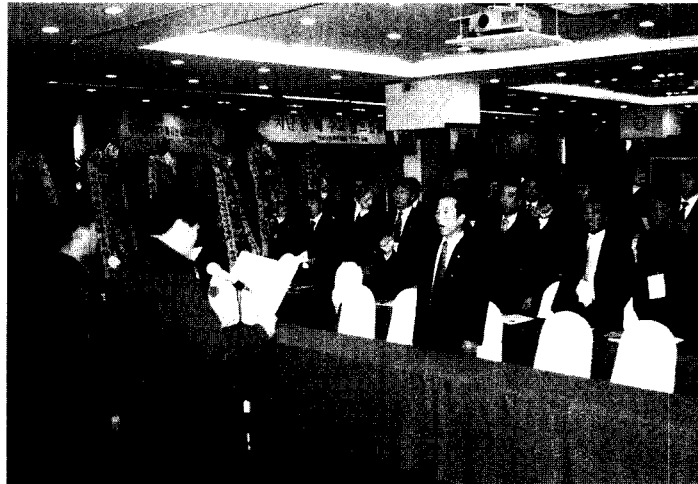


한 국낙농육우협회는 12월 17일, 18일 양일간 대전유성(레전드호텔)에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우수목장 시상식을 겸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먼저, 이승호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농민연합 윤희근 상임대표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 정 승 식품산업본부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2008년도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목장 시상식이 거행되었는데, 우수목장선정위원장인 강원대학교 성경일 교수의 경과보고에 이어, 12개 소 우수목장 선정목장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인 최우수상에는 늘복목장 남근희(경기 연천), 광주목장 류준열(전북 순창), 진영목장 윤명호(전남 곡성) 대표가 받았으며, 협회장상인 우수상에는 한사랑목장 이종만(경기 이천), 진주목장 박응규(경기 화성), 평화목장 김갑성(충북 청원), 대둔목장 장주석(전남 해남), 청산목장 정영환(경남 고성), 장려상에는 민정목장 이신복(강원 원주), 충북



좌 : 2008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우수목장 시상자 및 선정위원 단체 촬영 우 : 전남도지회 김용철 지회장과 강병권(육우) 이사의 낭독으로 결의문이 채택됐다.

목장 전세완(충북 청주), 마전목장 김완균(충남 논산), 해성목장 김해열(경북 청송) 대표가 받았다.

이어, 낙농, 육우업 회생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협회활동 및 낙농 육우 산업을 결산하는 영상보고가 있었고, 김용철 전남도지회장과 강병권 이사의 낭독으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결의문에는 스스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낙농기금 조성 결의와 함께 낙농육우 현안에 대한 6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리더십 강의에는 前 농특위원장인 단국대학교 장원석 교수가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의 주제로 창조경영과 협동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초청강연에는 경운대학교 윤복만 교수의 “21세기 fun경영과 조직 활성화” 주제로 강연을 가졌는데, 생활 속의 웃음과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 강조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협회는 금번 지도자대회와 전국순회 낙농 인대토론회에서 수렴된 낙농육우 농가들의 의견을 검토, 향후 협회활동에 반영하여 관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이란 주제로 리더십 강의를 맡은 단국대학교 장원석 교수



“21C fun경영과 조직활성화”란 제목으로 강연한 경운대학교 윤복만 교수

□ 결 의 문 □

낙농,육우업 회생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

이대로는 안된다.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낙농육우 정책을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FTA 개방의 파고를 넘으라고 하면서도 대책다운 대책마련은커녕, 송아지 값이 단돈 3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참담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진정 낙농,육우업이 이대로 고사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옳다.

사료값은 지금도 천정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폐업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료업체의 사료값 인상이 정말 타당한지 조사라도 한 번 해봤는가 말이다. 사료값 인상은 당연히 하면서, 송아지 값 폭락, 육우경락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들의 상황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니 소가 웃을 일이다. 게다가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유업체의 농가 쿼터 감축을 부추기는 행태만 일삼고 있으니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만약, 지속적인 농가의 고통 감내만을 강요한다면, 이제 전국 낙농, 육우인들은 햇불을 높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 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낙농,육우 지도자들은 지난 '전국 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에서 보여준 낙농육우가족들의 뜻을 모아 우리 스스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낙농기금 조성을 결의하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계속해서 우리 낙농,육우인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재차 경고해둔다.

- 우리의 요구사항 -

- 하나, 정부는 낙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 하나, 정부는 육우를 국내 소고기 자원으로 인정하고 근본적인 육우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 하나, 송아지 값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정부는 즉각적인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실시하라!
- 하나, 낙농진흥회(정부)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방침과 유업체의 일방적인 쿼터삭감을 반대한다!
- 하나, 정부는 우리 우유, 우리 육우고기의 소비확대와 기반유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 하나, 정부는 사료회사의 사료값 원가공개를 즉각 추진하라!

2008. 12. 17

전국 낙농육우인 지도자 일동

전국서 일제히 송아지·육우값 폭락 대책마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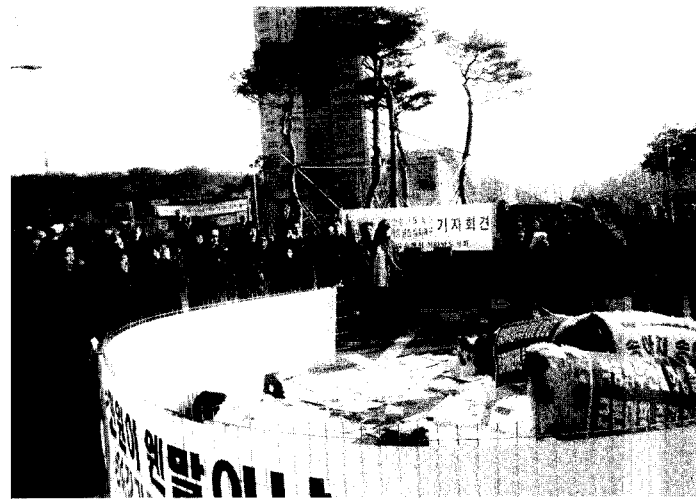
연말이 되도록 장기화 되는 송아지(육우)가격의 폭락에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는데 대해 전국의 낙농육우인들이 생존을 위해 일제히 한목소리로 육우, 송아지값 폭락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서 강원(강원은 11:30 개최),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서는 각 도청 앞에 “육우, 송아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하고 TV 뉴스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충북,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는 당일 새벽부터 목장입구와 도로마다 경찰을 주둔시키는 등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봉쇄하여 농가들의 말 할 권리조차 박탈했다며 강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육우·송아지 대책마련 요구의 목소리는 성탄절 이브라고 끊이지 않았다. 23일 동시다발적인 전국 도청 앞 기자회견에 이어 24일에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경기지역 낙농육우 농가 및 농민단체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협회 이승호 회장은 현재 육우, 송아지값이 2~3만원에도 거래가 안되고, 육우값도 30% 가까이 폭락해 도저히 목장을 경영할 수 없는 지경인데



▲ 좌 : 120여명의 전북농가들이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 전북도청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 좌 : 전남농가들은 전남도청 앞으로 송아지를 갖고 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 TV방송국, 지역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송아지값 인정을 위한 대책마련과 정부의 일방적인 잉여유치당가가격제의 개정을 중단하고 유업체의 농가유대 삭감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 경남농가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좌)을 가진 직후 경남도청 경남도청 농수산국장과의 면담(우)을 갖고 송아지육우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강병권 육우농가 대표는 오늘은 육우가 차에 실려 있지만, 오늘 이후에도 대책이 없다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육우와 송아지들이 뛰어다닐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경기낙농가대표로 나선 김정대 서울우유연합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농

가 원유(原乳)값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육우와 송아지 수매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농민연합 윤요근 상임대표도 육우송아지가 부산물이라면, 낙농육우 농가는 이 나라의 부산물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

●● 현장스케치 ㉓

덕운 회장은 농가들은 어려워 못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미FTA 국회비준이 웬 말이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상경하던 육우 5두가 실린 차량이 과천일대에서 경찰에 봉쇄되어 한

동안 참석 농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자회견 도중 육우를 실은 차량이 억류되어 있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 기자회견을 속개해야만 하는 미증유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



▲ 좌 : 기자회견을 위해 경기지역에서 동원된 송아지를 실은 차량이 과천종합청사 주변 아파트촌 내에 억류된 모습
 우 :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지자 기자회견장을 소들이 실린 차량이 억류된 장소로 옮겨야 했다.



▲ 좌 : 경찰병력의 저지로 기자회견장 이동과정 조차 순조롭지 못했다.
 우 : 퍼포먼스 "대한민국 어느 젃소송아지의 일기"를 통해 2만원 육우 송아지는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성우가 돼도 100만원 적자 인생이라면 서, 정부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마련을 촉구했다.

□ 낙농, 육우 회생 촉구 기자회견문 □

낙농육우 농가 줄도산, 이대로 죽으란 말인가!

한마디로 참담하다. 육우는 두당 1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출하하고 있고, 피붙이와 같은 송아지는 단돈 2,3만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농가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마련은커녕 소 닭 보듯 뉘집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주 경북 청도의 한 육우 농민은 출하직전의 소를 신고 늦은 밤 국회를 찾아 제발 싸움만 하지 말고 민생 좀 돌보라고 울부짖었다.

육우는 국내 쇠고기 자원으로 수입육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 그러나 지금 육우농가들은 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부는 지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의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육우농가와 낙농가들이 모두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무대책으로 가다간, 낙농업과 육우업의 동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학수고대 해왔다. 허나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와 실망감 뿐이다.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렇다 할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나서서 농가들의 원유(原乳)값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여기에 유업체 또한 일방적으로 농가들의 쿼터삭감을 단행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들끓는 농심을 보지 못하는가!

정부가 정녕 낙농육우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몰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23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낙농육우농가들의 외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농민의 생존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정부는 즉각 농가 원유값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육우, 송아지 수매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낙농육우 농가 생존권 말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육우, 송아지 수매 및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농가 원유값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8. 12. 24

한국낙농육우협회, 농민연합 대표자 일동